

2015. 8. 11.

# 안 전 관 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청양소방서 예산장비팀장 김기택

# 목 차

## I. 화재 안전관리

1.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1
2. 화재 예방은 -----	2
3. 화재발생 후에는 -----	4
4. 화재시 행동요령 -----	7
5. 화재시 긴급대피요령 -----	9
6. 화재피해복구 -----	10
7. 연기를 알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10
8.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11
9. 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	12
10. 도로터널화재 -----	12
11. 대형화재 -----	13
12.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시 -----	14
13. 지하상가 화재 안전수칙 -----	15
14. 지하철 화재 발생시 -----	16

## II. 교통사고 안전관리

1. 교통사고 예방은 -----	18
2. 교통사고 발생 때는 -----	21
3. 교통사고시 상황판단 -----	21
4. 구출 -----	22
5. 차량에서의 구조 -----	23

### Ⅲ. 항공기 사고 안전관리

1. 항공기 사고예방은 -----25

### Ⅳ. 놀이시설 안전관리

1. 탑승대기 주의사항 -----26
2. 일반시설 안전이용 -----26
3. 탑승제한 -----26
4. 어린이 탑승 -----27
5. 탑승대의 주의 사항 -----27
6. 운행중 자세 -----27
7. 탑승완료 후 퇴장 -----28

### Ⅴ.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1. 입·퇴장할 때는 -----29
2. 관람할 때는 -----29
3. 비상사태 발생 때는 -----29

### Ⅵ. 물놀이 안전관리

1. 물놀이 안전 수칙은 -----31
2. 물에 들어갈 때의 준비 사항은 -----31
3. 어린이 동반 물놀이 활동때 유의 사항은 -----32
4. 물놀이 상황별 대처 요령은 -----32

# I. 화재 안전관리

##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요령은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 《Q&A》

Q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A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 한재 예방은

### 1. 건물화재 예방

-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헌옷, 신문폐지, 폐박스 등)을 쌓아놓지 맙시다.
- 인화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나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함부로 놓지 맙시다.
- 카펫의 밑면이나 장롱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곳에ライター나 성냥갑을 두지 맙시다.
-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맙시다.
-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우다 깜박 졸 수 있는 침대나 이불 주위에서는 피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큰 재떨이를 사용합시다.
- "고층아파트에서는
  -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맙시다.
  - 피난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둥시다.
  -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밀폐 가능한 작은방 등)이 필요합니다."
- "고층건물(사무실)에서는
  -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숙지합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시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읍시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졌으면 교체합시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시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맙시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 "다중이용업소(레스토랑, 노래방, PC방 등) 이용 때는
  - 이용 전에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비상구가 개방되어 안전하게 지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시다.
  - 미로형의 통로로 건축이 된 건물은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건물 이용 때는

- 지하층 출입구가 1개소인 건물은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 2. 전기화재 예방

● "단락(합선) 때는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합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 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시다.
- 스위치, 분전함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합시다.
- 천장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설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하고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못이나 스테이플러(종이찍개)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합시다."

● "누전 때는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합시다.
-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 "전기 스파크 때는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둡시다.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둡시다.
- 배전반 내의 먼지,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합시다.
-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청소를 하여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시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 위험물, 기타 가연물은 두지 맙시다."

● "과부하 때는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합시다.
- 전기 기기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합시다."

● "과열 때는

-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합니다.
-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부위는 단단히 조여서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재발생 후에는

### 1. 화재 때 대피 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니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비상벨을 눌러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첫째.** 그 자리에 멈춰선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진다.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준다.

## 2. 화재 신고 방법은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침착하게 화재발생장소,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신고순서

- ① 신고자 이름 : ○○○입니다.
- ② 화재가 난 곳의 주소 : 모를 경우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한다.
- ③ 신고자 전화번호 :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④ 화재 원인 : 전기, 기름, 가스 등

## 3. 지하철 화재 발생 때는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시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시다.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끄시다.

#### 4. 지하상가 화재 발생 때는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 지하상가 구조상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절대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도 맙시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시다.
- 연기·열기가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으니 재빨리 피난합시다.



#### 5. 고층건물 화재 발생 때는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 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합시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 화재 시 행동요령

### 1.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

-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 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 2. 화재사고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 3. 초기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끄는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이때 주의할 점은,

-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감전 위험이 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됨."

#### 4.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서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서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5. 소화기 사용요령은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6. 화재 시 119 신고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7.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화재 시 긴급대피요령

-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입니다.
-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었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 화재 피해 복구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를 알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1. 화재 시 연기와 인명피해

- 화재시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 60% 이상 차지,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의 혼합 및 상승작용으로 강한 독성 발생

- 당황하면 평소 보다 3배 호흡량이 많아져 다량의 유독가스 흡입

## 2. 연기 속 완벽한 대피를 위한 전제조건

- 화재가 적시에 감지되고, 화재경보가 울려야 한다.
- 수용인원이 경보를 듣는다.
- 경보를 들은 모든 인원이 대피를 시작한다.
- 대피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구로 향한다.

## 3. 연기 속 인명피해 예방(피난유도 요령)

- 피난유도는 건물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실시(종업원, 건물주 등)
- 유도등의 불빛에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유도하고 비상조명등 활용
- 우선 사람들을 안정시킨 후 이동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1.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4.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5.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에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 도로터널 화재

### 1. 도로터널 이용 시민고객 안전운행 예방

- 터널 진입전 입구 주변에 표시된 도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 감속 및 전조등, 차폭등을 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글라스는 벗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신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차선변경은 해서는 안 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터널 화재 시 시민고객 대비?대응

-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상전화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차량의 부상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비상전화 및 휴대폰 사용 터널관리소 및 119 구조요청)
-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나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으로 조기 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 연기를 피해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외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3. 도로터널 화재 복구

-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견인차로 차량을 이동조치 합니다.
- 화재 발생부터 화재 진압 복구 시 까지 비상방송을 계속 진행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 대형화재

### 1.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니다.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 2.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세요.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합니다.

## 3.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시

## 1.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니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습니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니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니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2.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니다.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 지하상가 화재 안전수칙

-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 평소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전기배선을 하지 않습니다.
-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난·불연 내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 방화셔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대형시장 건물 등에서는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잘 관리합니다.

# 지하철 화재 발생시

## 1. 역사 내 화재 대처 요령

### 01 화재경보

역사내 화재용 비상벨(발신기) 버튼을 눌러 모든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립니다.

### 03 초기진압

초기화재시 역사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 02 긴급연락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 및 벽등에 부착된 긴급연락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역무원에게 알리고 소방서 (119)로 신고를 합니다.

### 04 대피요령

역무원 및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2. 대피 시 유의사항

- 역무원이나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경우 옷이나 수건, 소방용품보관함에 비치된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 벽면 및 바닥에 부착된 통로유도등을 따라 대피하여 주십시오.
- 가급적이면 화재발생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피하십시오.
- 선로로 대피하실 경우 승강장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 직원이 없는 경우 열차가 진입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터널 내 이동시 레일 중앙은 위험하오니 레일 좌우주변을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동하십시오.
- 이동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손을 잡아 서로를 격려하며 침착하게 이동하십시오.

## 3. 열차 내 화재 대처 요령

01 객실끝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로 승무원과 통화합니다.

02 차장또는 기관사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합니다.

03 국번없이 119에화재를 신고합니다.

04 객실 양끝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은후

08 선로에 내릴 때 다른 열차가 오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07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어 개방한 후 좌석 양 옆 하부(구형) 또는 상부(신형)에 위치한 비상코크를 사용하여

06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05 소화약재를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려 신속히 진화합니다.

■ ■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 ■

- 
- ①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 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③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 

■ ■ ■ 소화전 사용요령 ■ ■ ■

- 
-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 

#### 4. 대피 시 유의사항

- 대피 시에는 손수건이나 옷소매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역무원의 유도 안내 및 비상유도등을 따라 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등을 우선 안내하고 차장, 기관사 및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 II. 교통사고 안전관리

### 교통사고 예방은

#### 1. 자전거 안전운전 수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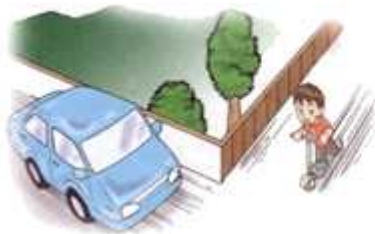
-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건널목(횡단보도)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시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때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지 말며, 과속을 하지 맙시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실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때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자동차 사고 대비 방법은

-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건널목(횡단보도)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건널목(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니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니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건도록 합니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 3. 철도 사고 대비 방법은

●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방향의 열차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보 종이 울리거나 차단기가 하강 중일 때는 건널목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 앞차가 건널목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건널목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를 밀고 수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키로 시동모터를 돌리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밀어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도록 합니다."

●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080-850-4982, 1544-7788, 119, 112) 해주세요.

- 철길(교량, 터널 등)로 다니지 맙시다.
-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합시다.
- 철길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가축을 풀어 놓지 맙시다."



#### 4. 선박 사고 발생 대비 방법은

- 소화기와 유리창을 깨는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유사시 탈출로가 어디인지 확인합시다.
-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경보기를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유리창을 깨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화재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으세요.
  - 선장 등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탈출합시다.
  - 출입문 쪽에 화염이 있거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선내에 비치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합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거적, 낙엽 등으로 덮거나 서로 몸을 맞대거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모터보트 등 소형 선박은
  -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타야 합니다.

- 선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음주자는 소형선박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때는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합니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시 상황판단

### 1. 상황판단시 고려사항

- 관련된 차량의 수와 종류, 손상정도 : 작업을 부여 받은 대원과 장비들이 현장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작업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 준다.
- 부상자의 수와 부상정도 : 응급구조사, 의사에게 필요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의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신속하게 부상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살핀다. 때론, 응급 의료조치가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주저 없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부상이 경미할 경우 현장 보존이 최우선일 수도 있다.

### 2.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

- 위험통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 피해자의 구출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이나 목숨을 위협하게 할 요인이 발생시 사전에 안전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
- 차량이나 운반물은 부상자 구출 시에도 미리 신속하게 안정시킨다.
- 건물이나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 구조물의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안정화는 꼭 필요하다.
- 차량이 다리에 매달려 있거나 절벽에 걸려있거나 더 이상 움직이기 곤란한 위치에 있다면

구조작업 이전에 다른 차량의 고정방법을 먼저 사용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 자동차에 전압이 가해진다면 모든 전선에 전기가 흐른다고 여긴다. 자동차의 탑승객은 차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
-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동차와 접해 있어 차량에 전류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탑승객을 침착하게 차량 내에 머물도록 지시해야 한다.
- 연료탱크가 새거나 파열되어서 흘러나온 휘발유는 희생자와 구조대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신속히 구조요청을 한다. 또한 휘발유가 스며들어 흥건한 차량에는 올라타서는 안된다.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발화하여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다.
-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관련되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희생자들이 종종 차량으로부터 튕겨져 나올 수가 있다. 작은 어린아이는 어수선했을 속에서 간과되기 쉽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을 수도 있다.

## 구출

### 1. 구출준비의 목적

- 사고차량으로부터의 구출이나, 병원으로의 이송중의 다른 부상을 막는다.
- 자동차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의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 구출준비는 기도의 유지, 심각한 부상에 붕대감기, 과다출혈의 지혈, 그리고 모든 골절부위를 고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구출시 조치사항

- 부서진 자동차에서 사람의 구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골절을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신체의 일부만 고정시키는 것이 단단하게 묶어 놓는 것보다 사람을 옮기기에 더 쉬울 수 있다.
- 이송을 위한 고정 시에는 단순히 희생자의 몸통에 팔을 묶고 다리끼리 묶어 놓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짧고 긴 백보드가 가장 유용, 단단한 받침이 있어 사람이 고정되도록 하며 들거나 움직이는 것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짧은 백보드는 앉아 있는 피해자나 몸이 구부러진 피해자를 안정화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됨.

## 차량에서의 구조

### 1. 현장통제

- 가능한 한 신속히 현장통제를 구축한다.
- 안쪽 작업반경은 5m의 상상적인 서클로, 구조대원과 의료대원만 진입가능
- 바깥쪽 작업 서클은 교통차단 테이프(약 반경 10m)를 쳐서 구축하고 구조대원이 대기하고, 장비와 잔해물을 모아 두는 곳으로 사용됨.
- 기타 소방원, 경찰 및 구경꾼은 교통차단 테이프 바깥에 있어야 함.

### 2. 상황판단

- 일차적 상황판단은 현장에 가는 도중에 응답 시 받은 정보로 함.
- 현장 도착 시 외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자동차와 그 주변을 안정화 시킨다. (차량의 수와 종류, 부상자의 수와 부상정도,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 위험 요소 등)

### 3. 접근시도

-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시킴(바퀴와 차체에 부목을 대어서 고정)
- 시동이 켜져 있다면 시동을 끄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고, 핸드브레이크가 열려 있다면 핸드브레이크도 잠근다.
- 차량의 문이 열린다면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 문이 열리지 않으면 깨어진 앞 유리, 창문이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불가능시 차량을 전개한다.

### 4. 접근

-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의식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물어보고, 작업 진행시 작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 피해자의 경추(목)을 확실하게 고정시킨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놓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
-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나면 피해자의 구출 계획에 뒤따를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

(의자를 뒤로 젖힌다든지, 차량 지붕의 전개 등)

- 피해자의 신체중 일부가 다른 위험요소에 노출될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5. 구출

- 공간이 확보되고, 피해자의 대한 처치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긴 척추판을 갖다 댄다.
-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긴 척추판에 피해자를 놓는다.
-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판에 고정시킨다.
- 고정이 완료되면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동한다.
- 어떤 부상자라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옮겨져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나 구조대원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무시될 수 있음. 화재, 가연성 기체나 액체, 절벽에서 차량의 요동, 혹은 다른 직접적인 위험으로 상황이 위급할 때)

# Ⅲ. 항공기 사고 안전관리

## 항공기 사고 예방은

### 1. 항공기 사고 발생 대비 방법은

● "비상상황 발생 때는

- 비행 전 승무원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상황발생 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상장비가 있는지 승무원에게 문의합니다.
- 만일 비행 중 비상용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때는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이용 시, 굽이 높은 구두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장신구와 소지품을 기내에 남겨두고 탈출합니다.
- 충돌 전 좌석등받이를 앞으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 "항공기 여행 시 주의사항

- 기내 수화물은 유사시 신속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피와 무게를 준수합니다.
- 복장은 유사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합성 소재가 아닌 면과 같은 천연소재 의류를 이용합니다.
- 난기류 등에 의한 기체 요동에 대비하여 비행 중 좌석에서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만일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비행 중 발생 가능한 신체·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탑승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 주세요.
- 출발 전 배정된 좌석에 착석합니다. 배정된 좌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항공기의 비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IV. 놀이시설 안전관리

### 탑승대기 주의 사항

- 대기 중에 안전 울타리에 걸터앉거나 넘어가는 행위 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넘어지거나 유기기구(놀이기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한다.

### 일반 시설 안전 이용

- 놀이동산 안에 있는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도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뛰어다니는 행동을 자제하고, 놀이기구 간 이동 시 계단 등의 미끄럽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주의해서 다니도록 한다.
- 전기시설이나 화기시설, 울타리 내부 등 접근금지구역이나 운행하지 않는 놀이시설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출입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탑승 제한

- 놀이기구 탑승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키 제한이다. 이 제한은 규정된 키보다 작은 사람은 놀이 기구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보장 조건이다. 일부 놀이 기구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면 규정된 키보다 작은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의 보호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 임산부, 노소약자, 음주자 등 신체적으로 안전 위험이 따르는 사람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의 건강상태를 근무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디스크 등을 앓고 계신 분은 놀이기구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 놀이기구를 무리하게 오래 이용하거나 식사 후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한 다음 이용해야 안전하다.

## 어린이 탑승

-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때는 안쪽으로 어린이를 앉히고 레버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안전봉을 두 손으로 꼭 잡게 한 다음 출발한다.
-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출발 전에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을 도와 안전 벨트를 확인하고, 하차할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가장 훌륭한 안전관리자이다.

## 탑승 때 주의 사항

- 놀이기구 탑승 시 올바른 탑승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고 정확한 자세를 갖춘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 롤러 코스터류의 놀이기구 중 상체가 고정되는 기종은 개인별로 안전레버와 벨트가 있지만, 하체 고정형 기구는 개인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안전점검 시 함께 탄 사람들이 서로서로 확인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에서는 탑승 중 일어서거나 뛰어내리는 등의 돌발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고 탑승해서도 안 된다.
- 놀이기구의 기종마다 각기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의 종류와 장착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반드시 운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둔다.

## 운행 중 자세

- 운행 중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가지고 타지 않으며 항상 안전레버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운행 중 일어서거나 하는 불필요한 행동이나 안전장치를 풀거나 해체 또는 문을 열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 창으로 손을 내민다거나 놀이기구 밖으로 오물을 버리는 행위, 운행 중 음식물을 먹거나 친구들과 과격하게 장난하는 행위 역시 위험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운행 중 승객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안전수칙인 만큼 이용자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탑승 완료 후 퇴장

- 정지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푸는 행위나 정지하고자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놀이기구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 탑승객은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천천히 놀이기구에서 지정된 출구로 하차 하여 나간다.
- 출구로 뛰어나가는 행동 역시 대단히 위험하므로 자제한다.

## V.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 입·퇴장할 때는

-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 관람객은 진·출입 때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하여야 합니다.
- 관람객은 공연·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장과 퇴장을 하여 공연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 공연·행사장에 관람객이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
- 공연·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공연·행사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때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람할 때는

- 공연·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연·행사장 내에서 관람객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공연·행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 공연·행사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하거나 휴대전화를 꺼야 합니다.
- 공연·행사장 내에서는 공연·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공연·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행사시간에는 옆에 있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연·행사장에서는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연·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요령을 잘 지켜 공연·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비상사태 발생 때는

-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시다.
- 실내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 대피 시 119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합시다.

## VI. 물놀이 안전관리

### 물놀이 안전 수칙은

-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사항은

일반적으로 수영하기에 알맞은 수온은 25~26℃ 정도이다.  
물에 들어갈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숨을 들이쉬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러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뿜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 통나무 같은 의지 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 어린이 동반 물놀이 활동 때 유의사항은

-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 할 수 있다.
-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인지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뺀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 이므로 사전 안전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 물놀이 상황별 대처요령은

### 1.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는

-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한다. (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소모가 발생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지쳐서 휴식을 할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눕거나, 선해엄)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맞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 른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 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가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2. 수초에 감졌을 때는

- 수초에 감졌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거워지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어나오도록 한다.

## 3.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중 그러한 상황에 항시 놓여 있으므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넓적다리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 4. 하천이나 계곡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한다.
-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간다.
- 다른 물체를 이용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로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
- 밧줄(로프)은 물 위로 설치한다. 밧줄이 없을 때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 5. 물에 빠졌을 때는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6.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뒤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간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나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 7. 보트를 탈 때는

- 보트에 들어갈 때는 배를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키고 배뒷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배 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 배 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배뒷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8.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위험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때 즉시 119 (해상 122) 또는 1588-36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9. 갯벌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이용해 출입하며, 진입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갯골 주변의 갯벌은 물이 많이 머물고 있어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하지 않는다.
-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빠지면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때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하면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 시 되도록 긴소매의 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체험 시 갑자기 안개가 끼면 밀물 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때는 갯벌에 조류 때문에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끝.